

국민 하루평균 쌀 소비량 172.4g

쌀이 남아돈다. 급격한 소비 감소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72.4g으로 전년보다 3.3% 줄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120g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공기밥 2.2공기 정도

않은 셈이다. 1985년에는 한 사람이 한해 128.1kg의 쌀을 소비했다. 그러던 것이 30년 만인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9kg으로 떨어졌다. 대신 보리와 밀, 잡곡류, 콩류 등 기타 양곡의 한해 소비량은 8.8kg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쌀을 합친 전체 양곡 소비량은 1년 전보다 2.8% 감소한 71.7kg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양곡 소비 형태가 쌀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쌀소비 30년만에 ‘반토막’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 = 보통 밥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은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중에는 탄수화물이 든 밥을 먹지 않아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반드시 적당량을 섭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사 불균형을 일으킨다”며 “탄수화물 섭취가 줄면 집중력 저하, 우울증, 근력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수화물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밥에 든 ‘좋은 탄수화물’은 적당량을 먹어줘야 건강과 체중 관리 등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쌀 재고 누적…가격 하락 불러 =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432만7000t이다. 2009년(492만t)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86만t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한 해 평균 82만t

한해 128.1kg→62.9kg

하루 밥 두 그릇도 안먹어

전남 쌀 재고량 52만4천t

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이 쌀 생산이 늘고, 소비는 줄다 보니 양곡청고마다 쌀이 수북이 쌓였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쌀 재고량은 183만t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쌀 재고량은 52만4000t.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80만t)의 2.3배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쌀 소비량을 397만t으로 전망했다.

여기다가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서 들여와야 하는 쌀의 무수입량은 1995년 5만1천t에서 2014년 40만9천t으로 늘었다.

재고가 늘어나는 만큼 쌀값은 하락세다. 민간연구단체인 GS&I가 조사한 지난해 25일 산지 쌀값은 80kg당 14만4천원으로 작년 같은 날 15만9천원보다 9.5% 낮다. 벼 수확기인 지난해 10~12월 평균치(15만2천원)와 비교해도 오히려 5.6% 떨어진 상태다.

◇“밥 드세요”…소비 촉구하는 정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묵은 쌀을 가공용

이나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 비축농지를 빌려주거나 간헐적 임대료도 깎아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79만9천ha이던 벼 재배면적을 올해 76만9천ha로 3.8% 줄여 쌀 생산량을 390만t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보리와 밀, 목화가 값싼 외국산에 밀려 도태됐던 것처럼 벼농사 기반도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량 주권을 외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쌀 수출과 가공산업 육성에도 힘 쏟고 있다. 한해 2000만t이던 국산 쌀 수출은 올해 중국시장 진출을 계기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맞춰 수출용 벼재배단지를 200ha에서 500ha로 늘리고, 쌀 수출협의회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연합뉴스

한우농가 4년만에 42% ‘뚝’

FTA 체결후 6만6천호 줄어…전남 매일 8곳씩 폐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 이후 한우농가가 매일 45호씩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남도와 농업 확산경제리서치센터의 ‘FTA 시대 한우산업의 구조변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사육호수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년 15만4000호에서 2016년 8만8000호로, 42%(6만6000호) 급감했다고 밝혔다.

4년간 한해 평균 1만6500호씩 사라진 것인데, 하루에 45호씩 문을 닫은 셈이다.

전남은 ▲2012년 2만8624호(사육두수 50만5443마리) ▲2013년 2만3102호(47만6335마리) ▲2014년 1만9196호(44만3512마리) ▲지난해 1만6967호(41만6096마리) 등으로 지난 4년간 45.54%인 1

만1657호가 사라졌다. 지난 4년간 하루 평균 8개 한우농가가 사라진 셈이다.

농가들이 줄도산하면서 한우 사육 마리수도 2012년 이후 매년 15%씩 줄었다. 전남은 21.47%인 8만9347마리가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 가격 상승은 FTA 이후 농가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공급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문닫는 농가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미 FTA의 발효 시점인 2012년을 기점으로 가격 폭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고 정부까지 나서 암소 감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공급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이다. 이종행기자 galee@연합뉴스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메르켈 독일 총리 1위

힐러리 2위·박 대통령 12위

양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에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로부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은 12번째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2016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을 발표하면서 6년 연속 메르켈 총리를 맨 위에 올렸다. 2위는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지명인 유력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선정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 메리 베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가 각각 3~5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사상 첫 美 여성 대통령 후보…트럼프와 격돌

힐러리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후보 지명 ‘매직넘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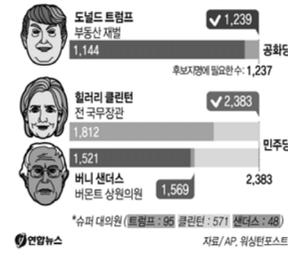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사실상의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지난 2월 1일 아이오와 주 코커스(당원대회)로 경선을 시작한 이래 127일만이다.

이로써 오는 11월8일 열리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힐러리 전 장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사실상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첫 여성 대통령 후보와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TV쇼 진행자 출신의 정치 ‘아웃사이더’의 세기적 대결이다.

AP 통신은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전체 대의원 과반인 2383명을 확보해, ‘매직넘버’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대의원 1812명에 더해 경선 레이스 전 이미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둔 당원직 슈퍼대의원 571명을 합친 것이다.

슈퍼대원은 프라이머리(예비투표)나 코커스(당원대회)의 투표 결과와 관

미 대선 경선 주자 확보 대의원 수



계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표를 던질 수 있는 주지사, 상원의원, 전직 대통령 등 당내 거물급 인사를 말한다.

당초 클린턴 전 장관은 7일 가장 많은 546명의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 등 6개 주 경선을 계기로 ‘대선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반에 23명 부족한 대의원이 6개 주 경선에서 충족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5~6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경선에서 각각 샌더스 의원을 제압하고 슈퍼대의원들의 막판 지지가 몰리면서 예상보다 하루 일찍 매직넘버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AP의 매직넘버 도달 보도가 나온 뒤 “뉴스에 따르면 우리가 역사적 순간을 맞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확보한 대의원 수는 1569명(슈퍼대의원 48명 포함)에 그쳤다. 샌더스 의원이 7일 6개 주 경선 후 패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패배를 인정할지, 7월 25일 전대까지 완주를 고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정당의 여성 대선후보가 됐으며 7월 전대에서 당 대선후보로 공식 추대된다.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당시 ‘검은 돌풍’을 앞세운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던 클린턴 전 장관은 8년만에 경선 패배를 설욕하고 대권 도전 재수에 성공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7일 걸린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뉴멕시코, 몬테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등 6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고 나서 경선승리를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월 정당대회서 추대 9.26 TV토론 11.8 유권자 투표

美 대선까지 남은 일정

미국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사실상 대선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에게 남은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다음 달 열리는 정당대회에서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추대되고, TV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린 다음, 오는 11월 8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단계다.

6일(현지시간) 현재 민주당은 7개, 공화당은 5개 주 또는 지역에서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7일 양당 경선이 진행되고, 같은 날 노스다코타 주에서 민주당 경선이 치러진다. 이로써 공화당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주별 경선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당원대회(프라이머리)를 마지막으로 주별 경선을 마무리한다.

그 다음의 공식 일정은 7월 18일부터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와, 7월 25일부터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다. 양당의 경선 승자들은 전당대회 전까지 그동안 경쟁 관계였던 사람들을 아우르고 부통령 후보감을 찾는 한편으로, 대선 후보로서 미국인들에게 내세울 공약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정당별로 ‘내부 통합’에 실패한다면 전당대회장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표결에 나서는 ‘경쟁 전당대회’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당대회를 거친 양당 대선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발품을 팔아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광고를 낼 뿐 아니라, 어쩌면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세 번의 TV토론에 나서야 한다.

오는 9월 26일로 예정된 1차 TV토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9일과 같은 달 19일에 각각 2차와 3차 토론이 치러진다.

그리고 나면 후보들은 ‘운명의 날’인 오는 11월 8일을 맞게 된다. 엄밀히 따지면 이날 각 주에서는 대선 선거인단을 뽑는다. 그러나 선출되는 각 주의 선거인단은 모두 그 주에서 진행된 투표의 승자를 지지한다는 암묵적 동기가 있어서 이날 진행되는 결과가 실제 대통령 선거인인 오는 12월 9일 그대로 이어진다.

내년 1월 5일이 되면 대선 개표 결과가 정식 발표된다. 그리고 오는 1월 20일 클린턴과 트럼프 두 사람 중 한 명은 워싱턴DC의 회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 /연합뉴스

9급 공무원 10년만에 5급 될 수 있다

인사처,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

지금까지는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7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내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활용 실적이 미미해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가운데 우수 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하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에 이르고, 그러다보니 고위공무

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진도군 공고 제2016 - 200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신동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7

진도군수

-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신동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 나. 사업시행자: 진도군수
 - 다. 사업위치: 진도군 근내면 둔전리 일원
 - 라. 사업규모
 - 수해면적: 10,6ha
 - 사업량
 - 방조제 보강: 268m, 저류지확장 A=2,200㎡, 배수갑문 신설 1개소, 수문분류: 7개소,
 - 공사기간: 2016. 6. ~ 2018. 12.
 - 사업비: 3,000백만원
- 편입토지 및 보상물건 내역
 - 가. 토지: 진도군 근내면 둔전리 일원 (세부내역 별칭)
 - ※ 편입면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확정 측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2016년 8월 이후 예산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
 - 나. 보상방법: 현금보상(계좌입금)
 - 다.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평가기관: 3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 산정금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한 금액
 - 라. 보상절차: ①평가의뢰 ②보상에상정보통 ③재야제결 ④소유권이전등기 ⑤보상금 지급 ⑥협의불성립사수용예결 ⑦협의불성립사공과 ⑧이의예결 또는 소송
-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2016. 6. 7. ~ 2016. 6. 22.(15일간)
 - 나. 열람장소: 진도군청 안전건설과
 - 다. 이의신청: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서면(우편 가능)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거 도시자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체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안전건설과 기안보정담당(☎061-540-3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공고

광주 최초의 도심산단 「I-PLEX 광주」

광주경제 중심 동구에 멀티플렉스형 도심산단인 「I-PLEX 광주(광주지식산업센터)」가 개관합니다.

경영 환경변화와 장기성장을 꾀하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용도: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 위치: 광주 동구 장동로 35(중랑도서관 옆)
- 업종: 도시형공장, 지식서비스업 등
- 규모: 전용면적 기준 79㎡(22평형)부터 152㎡(46평형)까지 다양
- 접수: 2016년 6월 15일~21일
- 문의: 광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62-602-7257, http://gjtp.or.kr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병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남구 주월동 상가 지하층~6층 380평 토지103평 제석초등학교 앞 코너 ▶ **감정가 8억 최저가 5억6천만원**
- 담양읍 객사리 건물36평 토지131평 재건축가능 위치,생활권충족 ▶ **감정가 1억2천백 최저가 8천5백만원**
- 광산구 월계동 6층상가전물중 6층 건물63평 토지18평 사무실,상가 ▶ **감정가 2억4천 최저가 1억98백(감정가의 45%)**
- 북구 매곡동 4층근린시설 대지224평 대지382평 학원,병원추천 ▶ **감정가 12억2천 최저가 8억5천만원**
- 남구 진월동 전393평 진월대주 2차근처 등산로접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감정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만원**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담양군 월산면 고급전원주택 대지211평 2층 건물82평 주변환경 최고 교통편리 ▶ **감정가 5억3천 최저가 3억7천**
- 나주시 노안면 2층 건물6평 대지107평 주차편리 사무실 및 유통시설추천 ▶ **감정가 1억7천 최저가 6천2백**
- 화순읍 삼천리 전234평 전원주택 건축가능 도로접 주변환경 양호 ▶ **최저거래가 2천3백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12평 마을입구 도로접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거래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